

올림픽 대회 운영의 변천사와 IOC의 ESG 경영 탐색 연구

송정하*, 윤우섭*, 전순영**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전공 학사과정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전공 교수

e-mail: *wjdvdsdb@naver.com, **syjun@ut.ac.kr

The Exploratory Research of the Olympic Transition and EGS Management of IOC

Jungha Song*, Wooseop Yoon*, Soonyoung Jun**

*Bachelor's Course in Dept. of Convergenc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rofessor in Dept. of Convergenc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약

기업들은 자원의 고갈과 같은 환경문제와 소비자들의 요구 증가로 지속 가능 경영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장하였으며, 최근 올림픽 현장에도 발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운영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올림픽운영에 현 시대의 트렌드인 ESG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의 올림픽을 예측하고자 한다.

1. 서론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환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속 가능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하였다. 지속 가능 경영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정책, 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익 증대라는 경영의 전통적인 가치 외에 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난다고 여겨졌던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합의, 그리고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두산백과)[1].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적인 생산에 목표가 있던 과거의 기업 가치관과 달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의 측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이다.

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 규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사회공헌

(Social-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지역사회와의 관계)·윤리경영(Governance-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기업윤리)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이는 전 세계의 기업은 물론 정부, 여러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이념으로써,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ESG 패러다임이 과거 올림픽과 비교하여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변하였는지, 앞으로의 올림픽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올림픽 운영의 변천사

2.1 과거의 올림픽 경영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은 최악의 환경오염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암모니아로 트랙을 얼려야 하는 빙상경기장을 주택가에 너무 가까이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또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 과정 중 희귀 습지대를 파괴하고 경기장과 콘도의 무분별한 건설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올림픽을

[표1] 올림픽에서의 ESG 변화 과정

1992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최악의 환경오염 올림픽의 사례 이후 IOC‘환경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이념 도입의 계기
1998 일본 나가노 올림픽	‘자연과의 공생’을 내세워 환경올림픽 홍보 - 효과 미미
2006 토리노 올림픽	지속 가능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환경 보 전 기준인 ISO 14000이 적용되는 첫 번째 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 ‘자연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강조하는 올림픽 - 이후 탄소 배출 에 대한 대비 미흡
2020 도쿄 올림픽	올림픽 ESG경영이 최초로 도입, 수소에너지, 리사이클링 제품 사용
2022 베이징 올림픽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 메타버스와 같은 기 술의 도입

위한 투자로 지어진 호텔과 리조트는 파산하였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올림픽의 남은 시설물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환경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였고, 스포츠, 문화와 함께 환경을 올림픽의 3대 정신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올림픽 개최 희망 도시부터는 환경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개최지 선정에서부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한국환경공단 블로그)[2].

하지만 이후에도 올림픽에서 환경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1998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자연과의 공생’을 내세워 환경올림픽임을 홍보했지만, 대부분의 경기장은 새로 건설되었고 봅슬레이 경기장 건설 부지에는 5천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다.(동계올림픽과 환경파괴, 2018)[3].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그리스의 문화유산을 돋보이게 하고 올림픽 이후의 주거문제해결과 재정적 이익창출을 목표로 올림픽 빌리지를 추진하였다. 단지 내 녹지대, 치수 등 친환경적인 빌리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인프라 스트럭처도 마련했으나 대중교통, 주민과의 문제로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다(도시재생뉴딜 공식블로그,2020)[4].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슬로건과 함께 환경보건 기준인 ISO 14000이 적용된 첫 번째 올림픽이다.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선수촌을 건립하였으나 위치, 리모델링 부족 등의 이유로 활용방안이 없어 현재는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불법채류자의 난민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5년 계획의 오염방지정책으로 대중교통 시스템, 친환경제품 사용 장려, 업체들도 환경 정화를 실시 그렇지 못할 시 쫓겨나는 방안까지 사용하여 총 147 업체가 쫓

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 8일전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은 줄었지만 짙은 스모그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은 개막 직전 차량 통제, 공장의 가동을 제한 시키기도 했다(토리노와 베이징 올림픽, 2009)[5].

2016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지구온난화의 산업 폐기물 등 지구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리우 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올림픽에서 친환경 운영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개막식은 ‘대자연과 환경’을 주요 주제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행되었다. 사용된 메달은 주조부터 완성까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 졌고 메달리스트에게 전달되는 약 2,500여개의 꽃다발은 일회성으로 사용되어 리우 올림픽의 주 목표인 ‘친환경’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아 꽃다발을 제작하지 않았다(중앙일보,2016)[6].

2.2 ESG 경영 : 2020 도쿄 올림픽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올림픽’ 이후, 여러 올림픽 개최지는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소 탄소 배출권 제도를 활용하였고, 배출된 탄소를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환경을 위한 노력인 ESG 경영이 시작된 것은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다. 정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출현, 사회적으로 국민의 윤리적 투명성 요구의 상황은 ESG 경영을 현대사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었으며, 올림픽 개최에 있어서 ESG 경영이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가 환경적 측면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올림픽에서의 친환경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2.2.1 도쿄올림픽 주최국의 ESG 경영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한 메달은 약 2년간 일본 전역에서 수거한 폐가전, 폐휴대폰으로 만들어졌다. 경기장 또한 재사용이 이루어졌는데, 요요기 국립경기장, 도쿄 국제 포럼 등 60%의 경기장이 기존 건축물의 목재를 사용해 재탄생하였다. 메달 시상대 역시 약 24.5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였다. 일본 전역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함을 통해, 모인 플라스틱은 3D프린터를 거쳐 98개의 메달 시상대로 탄생했다. 메달 시상대는 폐막식 이후 샴푸, 세제 통 등으로 재사용되었다(환경 비즈니스플랫폼 유이엔티, 2021)[7].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는 도쿄올림픽에서 활용되었다. 성화에는 그간 사용해왔던 프로판가스가 아닌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였고, 선수촌에 공급되는 에너지 또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로 공급하였다. 또한 선수들이 사용하는 침대는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골판지 침대’를 사용했으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텍

배 상자로 재활용되었다.
(도쿄올림픽 : 환경 이야기, (2021) [8])

2.2.2 도쿄올림픽에서 기업의 ESG 경영

도쿄올림픽에서 대표적인 기업 ESG 예시로는 도요타이다. 도요타의 경우 올림픽 기간 중 수소차 ‘미라이’ 500대를 지원하였으며 수소 버스 ‘소라’ 100대를 조달해 운영을 도왔다.

선수를 후원하는 부분에서도 ESG경영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KB그룹이 있다. 대기업과 금융계는 오래전부터 스포츠 유망주와 비인기 종목에서 활동하는 선수를 발굴하여 꾸준한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KB그룹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기계체조 여서정 선수, 탁구 신유빈 선수, 자유형 황선우 선수를 후원했다(세계비즈, 2021)[9]. 그동안의 기업들의 후원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KB그룹은 비인기·비주류 종목을 후원해 함께 성장하며 기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2.3 ESG 경영 : 2022 베이징 올림픽

ESG경영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2020도쿄올림픽에 이어 2022 베이징올림픽에서도 ESG 열풍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기업인 노스페이스는 페트병 리 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해 개회식 및 폐막식 단복, 유니폼을 제작하여 제공했다. 이외에도 한진관광의 수소 버스 운영, 아모레퍼시픽의 사탕수수 용기 제공 등이 있다.

이전 2020도쿄올림픽과의 다른 점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올림픽 ESG 경영에 참여하며 물질적인 부분 외에서도 ESG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네이버에서는 전 선수단의 일러스트는 물론 팀코리아의 스토리를 담은 코리아하우스를 제작·운영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사용해 스키점프 응원 현장을 만들고 쇼트트랙 등 복장, 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대한체육회 블로그)[10].

3. 앞으로의 올림픽 예측

과거 환경을 생각하는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이후, 올림픽은 더 나은 운영방식을 채택해 왔고 현재 ESG 경영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적 약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올림픽에서도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저 명목뿐이었던 ‘환경올림픽’이라는 개념이 현재 올림픽에서의 ESG 경영까지 발전한 이력으로 보아 앞으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0’인 올림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록의 회장인 래리 핑크가 주주서한을 통해 2022년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기업과 직원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발표하였다. 이 또한 ESG가 미래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매거진 환경, 2022)[11].

본문 내용과 같이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이행하고 홍보 효과와 사회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이기에, 앞으로의 올림픽에서는 서로 참여하기 위한 라이벌 기업들의 경쟁 구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기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ESG 경영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아이디어 또한 올림픽의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네이버의 메타버스 기술의 도입과 같이, 최신 기술 또는 앞으로 나올 기술이 도입한 ESG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기업의 ESG 경영으로 소비자가 만족을 느끼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며 서로 만족하는 원활한 자본의 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할 것을 보인다.

참고문헌

- [1] 두산백과 ‘ESG’
- [2] 한국환경공단블로그 “올림픽도 친환경이 대세! 저탄소 친환경 평창올림픽”
- [3] 평창올림픽반대연대 “동계올림픽과 환경파괴”
- [4] 네이버 블로그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도시재생을? 올림픽 빌리지”
- [5] 네이버 블로그 “토리노와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밖의 승부”
- [6] 중앙일보 “리우는 친환경 올림픽? 환경파괴 올림픽?”
- [7] 환경비즈니스플랫폼 UENT “2020도쿄올림픽 키워드, ‘ESG’”
- [8] 환경이야기 “도쿄올림픽:환경이야기”
- [9] 세계비즈 “기업의 올림픽과 전폭적인‘비인기종목지원’... 신개념‘ESG다’”
- [10] 대한체육회 블로그 “팀코리아의 든든한 조력자, 10개의 후원사”
- [11] 매거진 환경 “래리 핑크 블랙록의 회장의 연례서한 ‘ESG는 자본주의 수단’”